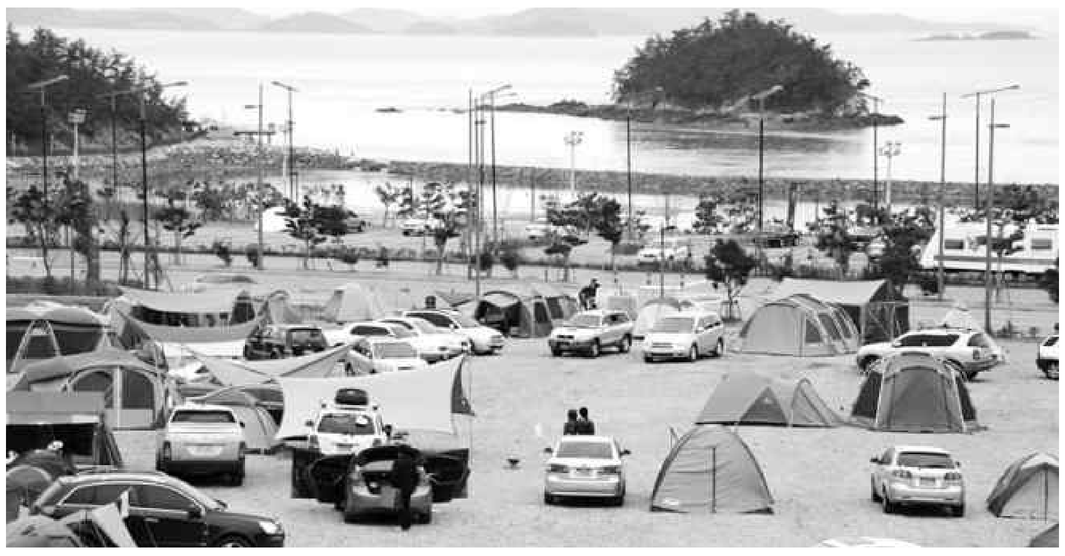
"땅끝해남으로 캠핑 여행 떠나요"

송호해수욕장오토캠핑장 카라반 18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낚시·갯벌 체험
흑석산 자연휴양림 치유·힐링 공간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 낙조 유명


오시아노 캠핑장.

산과 바다, 청정 자연속 여유가 가득한 땅끝해남이 캠핑 여행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올 여름 휴가는 해남으로 떠나 캠핑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땅끝황토나라테마촌, 흑석산 자연휴양림 등 해남캠핑명소 4곳을 소개한다.

먼저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에는 땅끝마을 관광을 겸한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곳은 아름다운 전경과 최상의 부대시설로 캠핑족들 사이에서 일찌감치 입소문이 난 캠핑 명소이다. 오토캠핑 사이트가 50면, 카라반이 18대 구비돼 있다. 캠핑장은 취사장과 샤워장, 바비큐장 등이 넓게 조성돼 있고, 송호해수욕장과도 바로 연결된다.

특히 리조트내에 조성된 18동의 카라반은 편리한 시설과 캠핑카에서 하루밤을 보낸다는 이색체험으로 일년내내 이용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캐러밴에는 부대 시설이 모두 조성돼 있어 캠핑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송호리 해수욕장 인근의 땅끝황토나라테마촌도 사랑받는 곳이다.

차량을 정박해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존 26면과 소나무 숲속에 자리잡은 숲속캠핑존 30면이 조성돼 있다. 또한 천연잔디구장과 넓은 수변 생태공원을 비롯해 황토문화체험관 등 편의공간과 휴식공간도 두루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앞바다에 나가 물론 낚시, 갯벌 체험 등도 할 수 있고, 송호해수욕장에서도 5분거리이다. 특히 8월 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꼼지락 캠핑이 열릴 예정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산림 휴양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흑석산 자연휴양림에도 야영시설이 마련돼 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조용한 숲속에 들어앉은 숲속의 집 숙박시설이 유명하지만 야영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조용한 여행을 즐기고 싶어 하는 캠핑족들이 즐겨 찾고 있다.

데크 시설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문을 연 50ha 규모 치유의 숲 등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해발 653m)에 자리한 흑석산자연휴양림은 2022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전남을 대표하는 치유, 힐링의 여행지로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는 요즘 가장 핫한 캠핑장으로 꼽힌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은 서남해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도로와 180도 조망이 가능한 낙조 등으로 유명하다. 해변에 인접해 있으며 200여면에 이르는 오토캠핑 시설과 함께 레저체험장, 바닥분수,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있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길수 있는 시설들도 완비돼있다. 여름 성수기에는 각종 이벤트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으로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여름철 농업 재해대책' 추진

완도군은 올해 평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 여름철 농업 재해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에 재해별 대응 요령을 문자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병해충 긴급 방제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로 구성된 완도군 현장 기술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긴급 복구와 기술 지원에 나선다.

또한 일손 돕기를 추진,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해 대응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비상근무 체제 유지 및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군에서는 가뭄 대비 19개 농가를 대상으로 관정 및 관수 시설 설치를 지원했고 최근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정 개발(120공)을 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재해 예방 대책 추진에 힘쓰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을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을 통한 농작물 재해 보험에도 가입하시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옥수수 재배농 열대거세미나방 주의 당부

영광군은 중국에서 날아온 열대거세미나방이 지난 11일 영광읍 입석리 일원에서 첫 발견됐다며 옥수수 재배농가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2019년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날아와 옥수수 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으로 약 44일(알 4, 유충 17, 번데기 10, 성충 13)의 발육기간 중 유충시기에 피해를 준다.

유충의 머리에는 'Y자 무늬가 새겨져 있고, 옥수수의 새로나오는 줄기와 잎 사이에 숨어 엽육과 줄기 심부를 가해하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논, 밭에 나가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발견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열대거세미나방은 지난 5월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6월 30일부터 여수, 함평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신안 홍도서 희귀조류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 확인

신안군은 섬 원추리 축제가 한창인 홍도에서 희귀조류인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사진〉 1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는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차이나반도, 말레이반도 등지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공원, 마을 주변, 농경지, 도심 공원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서식한다.

지난 8일 홍도 몽돌해변 일대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 1개체가 확인됐다. 이 종은 2019년 7월 부산에서 국내 처음 발견됐으며 이번 홍도에서 관찰이 국내 6번째 기록이자, 신안군 첫 기록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올 여름 휴가 '남도등대 한바퀴' 어때요

목포해수청, 18일부터 지역 등대스탬프 행사 운영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18일부터 지역 등대스탬프 행사인 '남도등대 한바퀴'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섬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해수청에서는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등대를 여행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등대여권(시즌 1·2·3)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11개 대표 등대를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방문해 인증사진을 찍고 확인받으면 방문 점수에 따라 지역 특산품(수산물)을 증정하는 한시적 행사다.

참고로 등대여권이 없을 경우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여권으로 전국 등대스탬프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호미곶등대'가 세계등대유산에 선정돼 등대의 문화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 또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등대를 주제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사 참여와 상품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수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재 목포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남도등대 한바퀴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등대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가족과 함께 자연 풍광을 만끽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 회산백련지 내 야외 물놀이장 오늘 개장

21일부터 무안연꽃축제

무안군이 무안연꽃축제가 열리는 일로읍 회산백련지 내 야외 물놀이장을 15일 개장해 8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사진〉

무안군은 매년 3만여명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에 어린이풀, 유아풀, 파도풀을 비롯해 매점, 샤워실, 그늘쉼터, 자동그늘막 시설 등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확충했다.

물놀이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성인 7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6000원, 어르신과 유아는 5000원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주차 관리, 쓰레기 수거, 응급처치 지원, 사고 예방 등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무안연꽃축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백련지 일대에서 열린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